

히미(HIMI City)의 자연을 지킨다

- 1 **지자체명:** 도야마현
- 2 **발표자명:** 다케하라 마이 (Mai TAKEHARA) , 아사노 시호 (Shiho ASANO) ,
다카타 마사요 (Masayo TAKATA)
(도야마현립 아리소고등학교 농업과학과 1학년)
- 3 **활동명:** 히미의 자연을 지킨다
- 4 **활동기간:** 2005년 4월 ~ 현재
- 5 **활동장소:** 주니초가타 수이고공원, 히미시 나가사카 아자 마에다 598, 히미시 나가사카
바바데 279, 히미시 오이다니 1249, 히미시 가미쿠주로 아자 후루미야
1621, 히미시 아와라 아자 미나토 1000, 히미시 도츠미야 등
- 6 **활동참가인원:** 매년 약 10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히미시는 기후나 지형, 식생(植生) 등의 자연환경에 있어서 현내에서는 매우 특이성을 띄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귀중한 식물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식물이 고사(枯死), 감소,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들은 이 현상을 방관할 수 없어 보존, 증식 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8 발표요지:

도야마현 히미시의 주니초가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가시연꽃 발생지」가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취소가 검토될 정도로 20여 년간 가시연꽃이 발생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연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협력해서 환경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3년전부터 지정장소 이외이기는 하지만 발생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발생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발생지의 특수조사,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히미시 나가사카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현지정문화재)」, 히미시 오이다니에 「동백나무」, 히미시 아와라에 「벗나무」, 그리고, 히미시 도츠미야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품종으로 인정받은 「벗나무 (시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지정, 시지정 문화재의 수목은 대부분이 노목(老木)으로 다음세대에 후계수목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씨만들기와 꺾꽂이를 이용해 증식을 도모하고 있다.

게다가 히미시 도츠미야에는 귀중한 「하나이카다(층층나무과), 츠쿠바네(Buckleya lanceolata), 무환자나무」 등의 식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식물에 대해서도 씨만들기와 꺾꽂이 증식 등의 방법으로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환자나무」의 열매로 천연염주를 만들어 환경에 배려한 상품으로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